한국인들이 반복적으로 쓰는 어휘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바꿀 수 있을까?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 책과 사전을 가까이하라지만
무작정 이들을 뒤적여 본다고 어휘력은 늘지 않는다.

다채로운 어휘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나의 말과
글이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어른의 어휘 공부'에 있다.

언어능력 키우는
아이의 말하기 연습

신효원 저

나의 말과 글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을까?

고급스럽고 지적인 대화를 위한 우리의 어휘!

우리의 언어 세상을 몇 안 되는 단어가 독식하고 있다. '술하고 허다하며 수많으며 수두룩하고 비일비재하며 하고많고 흔전만전하다'로 말할 수 있는 상황과 대상은 '정말 많고, 너무 많고, 진짜 많고, 좀 많다'로 뭉뚱그려 모습을 드러낸다. 부사 한두 개로 농도만 달리한 우리의 언어 세계는 종일 요동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눈에 들어온 세상을 잿빛 하나의 색으로 덮어 버린 듯하다. 나와 상대가 적당히 이해했으면 그만이지 싶지만, 늘 쓰던 단어는 낡아서 생동감을 잃었고 머리 한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쓴 단어들은 곧 사라질 것 같아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이 밋밋하고 쪼그라든 어른들의 무채색 언어 세계에 갖가지 색을 칠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겠다. 말과 글에 형형색색의 옷을 입히고 장막 속에 갇혀 있던 어휘를 들어내어 위축된 우리의 언어 세계를 넓혀봐야겠다.

이제, 어휘의 빈곤을 채울 때이다.

-「들어가며」 중에서 -

ISBN 979-11-91836-08-0 03190
값 17,500원

특별해지는
나의 말과 글이

어른의 어휘 공부

내 삶의 밀도를 높이는 법
어휘의 빈곤을 채워

신효원 지음

책장속 BOOKS

나의 말과 글이
특별해지는

어른의 어휘 공부

술하다 허다하다 수두룩하다 비일비재하다 하고많다 하고하다 흔전만전하다
마무리하다 매조지다 타결하다 매듭짓다 완결하다
끝나다 나다 나타나다 나오다 나다
옷다 가가대소하다 시실시실하다 해죽하다 키들키들하다 상그레하다 생그레하다 피인데소하다

내 삶의 밀도를 높이는 법
어휘의 빈곤을 채워

신효원 지음

책장속 BOOKS

신효원

'한국어'라는 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동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18년간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과 각국 주한대사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다.
조금이라도 더 새롭고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한국어 어휘를 배우려고 애쓰는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한국어 어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 《아이의 말하기 연습》이 있다.

나의 말과 글이
특별해지는

어른의 어휘 공부

어휘의 빈곤을 채워
내 삶의 밀도를 높이는 법

어른의 어휘 공부

고급스럽고 지적인 대화를 위한
우아하고 힘!

나의 말과 글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을까?
쉽고 깊은 답